



마이클 슈츠 관장



니나 뢰머(왼쪽)와 토어스텐 뢰머 부부



세오

■ 광주시립미술관 '21세기 전쟁과 평화'전 참석 독일 미술계 별들

“10년 내 세계가 ‘광주 미술’ 주목할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가 광주를 비롯한 한국 미술을 주목할 것입니다. 세오(본명 서수경)를 시작으로 더욱 많은 광주지역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의 3대 갤러리로 꼽히는 ‘마이클 슈츠 갤러리’의 마이클 슈츠(59·Michael Schultz) 관장과 니나 뢰머(Nina Romer)· 토어스텐 뢰머(Torsten Romer) 부부 등 ‘독일 미술계의 별’들이 24일 광주를 찾았다. 이번 방문에는 현재 독일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광주 출신 세오(본명 서수경)가 고향에서의 첫 전시를 위해 함께 동행했다.

25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막을 올린 ‘21세기 전쟁과 평화’(4월25일까지)전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온 슈츠 관장 일행은 5·18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전시 기획에 참여했던 슈츠 관장은 “참여작가인 펠크(A.R. Penck)와 뢰머 부부는 전후 독일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이다”면서 “한국전쟁과 5·18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명작’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되는 펠크는 전후 독일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이른바 ‘독일 신 표현주의’ 미술의 대표주자다. 이번 전시에는 ‘새로운 환영이 너희를 파괴한다’ 등의 작품을 통해 강압과 갈등으로 점철된 냉전시절의 역사적 모순을 보편적으로 보여준다.

또 뢰머 부부는 대도시의 일상을 사진으로 포착한 후, 사진 위에 다시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베를린 대상 앞의 준비’ 등의 작품을 통해 일상의 혼란 모습을 짙어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화면 구성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 공동 창작품을 선보이는 뢰머 부부는 시위 현장과 대도시의 일상을 사진으로 포착한 후, 사진 위에 다시 유화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오 “아이들이 5·18 같은 슬픔 다시는 겪지 않기를”

그녀는 최근 독일 쾰른에 세워진 아트호텔에 단독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작가로 선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작품 ‘전쟁’에는 꽃을 들고 있는 소녀와 춤을 추는 소년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전쟁과 폭력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류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이들의 작품에 대해 슈츠는 전쟁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색다른 기회라고 설명했다. 즉, 펠크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군상을 사냥꾼으로, 뢰머 부부는 다양한 폭력에 적극 맞서는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한 반면 세오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의 참상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유림미술계를 움직이는 메이저 갤러리의 수장답게 광주 미술에 대한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4~5차례 광주를 방문했는데 그 때마다 예술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서울슈츠 갤러리 등을 통해 광주 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번 광주 방문 기간동안 지역 작가의 작업실 등을 둘러보는 리서치 작업을 함께 펼칠 계획이다.

문의 062-613-7142.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독일에서 광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 ‘전쟁’ 연작 또한 5월 항쟁의 아픔이 담겨있다”면서 “역사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슬픔을 겪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고 말했다.

“3년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

광주를 찾아 항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옛 전남 도청을 둘러봤다”면서 “하룻밤 머문 화순 운주사에서 깊은 인상을 받기도 했다”며 광주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조선대 출신으로 독일 미술계에서 스타작가로 자리매김한 세오도 광주에서의 첫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독일에서 광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 ‘전쟁’ 연작 또한 5월 항쟁의 아픔이 담겨있다”면서 “역사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슬픔을 겪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독일 쾰른에 세워진 아트호텔에 단독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작가로 선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작품 ‘전쟁’에는 꽃을 들고 있는 소

녀와 춤을 추는 소년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전쟁과 폭력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류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희망을 담았습니다.”

이들의 작품에 대해 슈츠는 전쟁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색다른 기회라고 설명했다. 즉, 펠크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군상을 사냥꾼으로, 뢰머 부부는 다양한 폭력에 적극 맞서는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 한 반면 세오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전쟁의 참상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유림미술계를 움직이는 메이저 갤러리의 수장답게 광주 미술에 대한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4~5차례 광주를 방문했는데 그 때마다 예술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서울슈츠 갤러리 등을 통해 광주 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번 광주 방문 기간동안 지역 작가의 작업실 등을 둘러보는 리서치 작업을 함께 펼칠 계획이다.

문의 062-613-7142.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오페라, 발레를 만나다

전자랜드 무료 시은 음악회 30일 광주문예회관

‘오페라와 발레가 어우러지는 무대’

지난 1997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프리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진행하는 ‘오페라, 발레를 만나다’가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전자랜드(회장 홍봉철)가 고객 감사 문화 행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부산, 서울 등에서 ‘아이 러브 로코코’, ‘춤추는 보헤미안’, ‘영화 클래식 감동’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 왔다.

연주레퍼토리는 비제의 ‘카르멘 조곡 1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발레 ‘돈키호테’ 중 ‘그랑파드’ 등이다.

지휘는 김훈태(국민대) 교수가 맡았으며 소프라노 이화영(계명대 교수), 이현(영남대 교수)씨가 출연한다.



지휘 김훈태 발레리노 오윤환

광주시립무용단원인 오윤환씨와 발레리나 신승현씨가 오페라 노르마 중 ‘순결한 여신이어’,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에 맞춰 독무를 선보인다.

해설은 클래식 음악방송 전문 MC로 활약중인 피아니스트 박현주씨가 맡는다.

전석 무료. 문의 전자랜드 콜센터 (080-333-9933)와 동광주점(062-252-474-800), 상무점(062-374-98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클라노비아’ 창단 연주회

29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지역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클라노비아’가 2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클라노비아’는 피아노를 의미하는 클라비어(Klavier)와 새로운 뜻을 뜻하는 노바(Nova)의 합성어로 ‘피아노 연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멤버는 김정아(광주대 교수), 나원진(호남신학대 강사), 이근영(전남대 출강), 이랑(광주대 전임교수), 조미자(광주대 강사)씨로 구성돼 있다.

이번 창단연주회에서는 ‘피아노 음악의 구약성서’로 불리는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곡집’과 바흐의 평균율을 듣고 감동한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24개의 전주곡과 푸가 작품 87’을 연주한다. 콘서트 시작 한 시간 전부터는 김선철(작곡가)씨가 이번 연주회에서 들려줄 곡에 대한 해설을 진행한다.

클라노비아는 앞으로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레퍼토리 보다는 청중들에게 수준높은 음악을 들려준다는 각오로 새로운 음악을 발굴하고 특별한 기획연주를 진행할 생각이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670-26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5일 ‘21세기 전쟁과 평화’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독일 대표 화가인 펠크, 뢰머 부부와 조선대 출신 서수경씨의 작품 40여점이 선보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성 헤어 기능장 | 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최저가격** | **588 - 1000** "사람세상 반영"

가발

초슬림!! **가격** **50** 만원~

귀하의 품격만 만족을 높여주는 **행복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02-375-9208, 011-4022

프랑미수 011-870-9255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든 **100% 만족수!!**

방수전문수제는 **저렴하게** 믿고 맡기세요

도청, 지하실, 화장, 주차장, 옥외 등 방수를 요하는 모든 **장소**를 다하여 방수전문수제 방수방수제를 합니다

프리미엄 수제하는 **전문수제 방수전문수제** 방수 방수입니다